

나주 초·중·고 ‘IB 월드스쿨’ 인증 획득

빛가람초·금천중 이어 전남외고
성장 단계별 국제 기준 공교육 가능

나주시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초·중·고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제 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월드 스쿨 인증 체계를 구축했다.

나주시는 최근 전남외국어고등학교의 IB 고등과정(DP) 월드스쿨 인증 획득을 알리는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빛가람초등학교(PYP), 금천중학교(MYP)에 이은 세 번째로 초·중·고 IB 전 과정 연계 모델을 완성하게 됐다.

전남외고는 2023년 IB 관심학교와 후보학교 과정을 거쳐 2025년 최종 IB DP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학생 성장 단계에 맞춘 유기적인 국제 기준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IB 월드스쿨 인증 체계는 IB 기구가 정한 교육 철학과 운영 기준을 충족한 학교에 부여하는 국제 공인 교육 인증이다.

탐구·개념 이해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의 사고력과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인



전남외국어고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체계 인증 획득을 통해 국제 기준 공교육이 가능해졌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이 국제 바칼로레아 고등과정(DP) 월드스쿨 인증식 자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특징이다.

초·중·고 과정(PYP·MYP·DP)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인 국제 기준 공교육이 가능하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전남도교육청과 협력해 IB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교

육 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전남외고 인증은 나주 공교육이 국제적 기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미래형 공교육 모델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전국 초등 31개 축구팀

장흥서 동계 전지훈련

10일간 선수단 800명 방문

장흥군은 전국의 초등학교 31개 축구팀이 장흥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학생, 코치진, 학부모 등 축구선수단 800여명은 9일부터 18일까지 삼천공원축구장, 실내체육관, 풋살장 등 주요 공공체육시설에서 훈련을 한다. 연인원으로는 9000명에 이른다.

장흥군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지역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하는 등 동계 훈련팀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동계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방문단에는 해동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천문과학관 등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혜택도 지원된다.

특히 장흥군 내에 있는 전남 유일 전남도스포츠



초등 축구팀 장흥 전지훈련 모습.

과학센터와 연계해 참가 선수들의 체력 측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 참가

선수들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장 인공태양 구축 계획 설명 주민 소통

7~20일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윤병태 나주시장이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소 구축 추진 계획을 직접 설명하며 시민과의 현장 소통에 나선다.

나주시는 7일부터 20일까지 관내 20개 읍·면·동

을 순회하는 ‘2026년 주민과의 대화’를 열어 새해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주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와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인공태양 연구소 구축을 통한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과 ‘2026 나주 방문의 해’ 추진 방향 등 나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부서별로 검토해 단기 개선 과제는 신속히 반영하고 중장기 과제는 시정 운영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생계급여 확대

청년 공제금액 60만원으로 인상

담양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51%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월 195만 1000원에서 2026년 월 207만 8000원으로 인상돼, 최대 월 12만 7000원까지 지원이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소득·재산 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수급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추가 공제 금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1000cc 미만이면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동일하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된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2026년부터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생계급여 지원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음악 듣고 자란 강진 유기농 쌀 미 LA 첫 수출

영동농장영농조합법인 10t 선적

강진 영동농장영농조합법인의 유기농 ‘음악 듣고 자란 쌀’이 미국 LA 첫 수출길에 올랐다. <사진> 최근 미국 수출을 위해 상차한 쌀은 엄격한 기준의 USDA(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프리미엄 유기농 마켓인 에러헌(Erewon) 마켓으로 수출된다.

백미 7t, 현미 3t으로 총 10t의 쌀을 실은 차량은 영동농장에서 출발해 부산항으로 이동한 뒤 해상 운송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진다.

이번 수출은 총 100t 규모 수출 계약의 첫 물량으로 향후 추가 선적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 전략을 병행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세얼굴

“군민과 하나 돼 안전한 치안공동체 만들겠다”

양신철 화순경찰서장

“안전한 치안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84대 화순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양신철 총경은 “화순경찰서에 부임하게 돼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보다 안전한 지역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 서장은 “동료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화순군민에게 다가간다면 군민과 경찰이 하나가



역임했다.

태 안전한 치안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남원 출신인 양 서장은 경찰대학 14기로 2002년 경찰에 입문했으며 전북청 외사계장, 전북청 경무계장, 광주청 상황팀장 등을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